

용서와 포용, 그 화엄의 세계

사진작가 김기찬

- 8월 27일 작고한 선생님을 추모하며

김도연_ 소설가 · 샘터사 출판사업부 차장



김기찬의 유고집 《그 골목이 품고 있는 것들》에 실린 사진 중에서

왕성한 열정과 타고난 성실함으로 서울의 골목길을 누비시던 사진작가 김기찬 선생님이 지난 8월 숙환으로 돌아가셨다.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슬픈 충격이었다. 나는 출판기획자로서 선생님의 마지막 유작 《그 골목이 품고 있는 것들》을 편집 진행했다. 그것을 온전한 행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선생님의 부재가 주는 상실감이 너무 크다. 선생님 생전의 마지막 몇 개월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선생님을 추모하며 그 미련의 소회를 여기에 적는다.

나는 기획자이기 이전에 선생님의 사진 세계에 흠뻑 매료된 열렬한 팬의 한 사람이었다. 선생님의 '골목안 풍경'은 언제 어디서 펼쳐도 훈훈한 감동과 따뜻한 위안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선생님의 사진을 처음 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대학 졸업반이었던 나는 불투명한 진로와 개인적인 불행 등이 겹쳐 깊고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다. 게다가 IMF로 인해 고통의 체감은 극도로 더해졌다. 무기력과 패배감에 휩쓸려 귀한 청년

의 시간을 좀먹듯 소모하고 있었다.

그 무렵 보다 못한 선배가 내게 두터운 책 한 권을 내밀었다. 나는 뜻한 표정으로 그가 내미는 책을 받아 펼쳤다. 바로 거기에 따뜻한 화엄과 용서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김기찬 사진집 《골목안 풍경》.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였지만 선생님과 첫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사진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김기찬이라는 사진작가가 렌즈에 담아놓은 골목 안 풍경에 속절없이 매료됐다. 아, 이런 곳을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구나. 그가 렌즈에 담아놓은 골목안 풍경은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애뜻했다. 아이들이 좁은 골목에서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하얀 런닝셔츠 차림의 사내는 마당에서 면도를 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 날 할아버지는 수박 한 덩이를 들고 높고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오른다. 그들의 남루한 일상을 상징하듯 빨랫줄에 걸린 수수한 옷가지들이 서럽게 펼쳐진다. 나는 정말이지 그 안의 골목 사람들에게서 아주 장엄한 용서와 포용으로 구성된 화엄의 세계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언뜻 보면 누추하고 웅색해 보이는 골목안 풍경이 이처럼 풍성하면서

도 아름다울 수 있다니. 비로소 나는 세상과 타자에 대한 오랜 불안과 적의로부터 놓여날 수 있었다. 선생님의 사진은 내게 세상을 껴안고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선생님이 골목을 렌즈에 담기 시작한 것은, 서울을 고향으로 인식하면서부터다. 서울은 선생님께서 분명한 고향이었다. 고향 하면 보통 논과 밭이 어우러진 시골의 전원을 떠올리지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선생님께서 고향은 시멘트 블록담과 열기설기 이어진 산동네 골목, 바로 그것이었다. 선생님은 어린 시절 죽마고우들과 서울에서 뛰어놀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다.

서윤복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던 해에는, 갑자기 마라톤 붐이 일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사직동에서 동대문까지 뛰어갔다 왔던 일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때는 서울이라고 해도 차도 안 다니고 길도 그렇게 번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직동에서 뛰기 시작해서 동대문 돌기둥을 째고 돌아 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서윤복처럼 마라톤 선수가 되어 세계를 제패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골목을 렌즈에 담은 것은 바로 그런 시절의 향수를 가능하게 하는 골목의 감성을 험한 세월의 연동 속에서도 꼭 붙잡아 두려는 소박한 결의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골목들은 지금 소리 소문도 없이 하나둘씩 헐리고 있다. 개발 붐이 일어나 사람 사는 세계의 아웅다웅한 진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골목들이 헐리고 그 자리에 말끔한 양회를 바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산업 사회의 개발이 선생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선생님은 생전에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

“몇 년 만에 골목을 찾았는데, 그 골목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걸 보면, 생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마치 실랑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느껴요. 실랑민들은 그래도 고향을 상상 속에서 살려낼 수 있지만, 제가 뛰놀던 골목길은 영구히 그 지취를 감추어버린 거잖아요. 이 무모한 파괴를 목격하는 심정은 이루 다 말을 못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골목을 사진으로나마 보존해야겠다는 조바심이 일더군요.”

그 웅숭깊은 골목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일까. 출판기획안을 들고 선생님을 처음 찾아뵈었을 때의 그 친밀한 인상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을지로의 커피숍에서 뵈었을 때, 선생님은 사진에서 뵈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정적인 품위를 가지고 있는 노신사의 이미지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소리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아무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은, 자분자분한 상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준비해 간 기획안을 내밀고 선생님의 사진으로 책 한 권을 꾸미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아뢰었다. 안경을 꺼내 쓰시고 기획안을 살피시던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별로 좋지 않은 사진으로 이렇게 훌륭한 책을 꾸미겠다니 고맙구요.”



그 겸양은 선생님께서 렌즈에 담으셨던 그 골목안 사람들의 수긋한 인정을 닮아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다. 선생님은 며칠 뒤 택으로 나를 불러서는 당신이 찍어놓은 슬라이드 컬러 필름 파일을 보여주시면서 한 컷 한 컷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컬러 필름을 내주시며 그걸 가지고 작업해 보라는 것이었다. 라이트 박스 위에 펼쳐진 골목의 풍경은 마치 석화처럼 굳고 정갈한 것이었다. 그 경이로운 세계라니, 이 풍성한 세계를 길어 올리기 위해 선생님께서 파셨을 그 발품이며 노고에 다시 한 번 사심 없는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 사진들을 책으로 묶어 독자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랄까, 선생님은 그로부터 두 달 뒤쯤 병원에서 위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건 그 소식을 전하는 선생님의 담담한 목소리였다.

“위암 말기라고 하대요. 뭐,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겠지요. 김 차장이 작업을 좀 서둘러줬으면 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 책은 꼭 보고 가고 싶거든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긴장으로 책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선생님께서 그 암세포를 죄 떨치시고 다시 골목안을 누비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리고 책이 막 출간되어 나왔을 때, 선생님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날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막 제본이 된 책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가자 선생님은 힘없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김 차장, 나 같은 사람의 책을 만드느라 수고했어. 나머지 사진들도 잘 부탁하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승에서의 눈을 감으신 건 책이 나오기 보름 정도가 지나서였다. 선생님은 가셨지만 나는 선생님이 사진을 통해 펼쳐 보인 그 포용과 용서의 세계가, 젊은 시절 내게 그랬던 것처럼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추천**